

크레이그 키너 박사, 로마서, 강의 15,

로마서 15:13-33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15회기 로마서 15:13-33입니다.

이제 나는 사람들이 종종 로마서의 처음 여덟 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로마서 후반부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조금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 1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먼저 바울이 주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도와 축복은 편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1장에서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한 이 기도에서 희망의 하느님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희망이 넘칩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얼마 전 Juergen Moltmann 과 함께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우리는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는 희망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적 희망은 적어도 의미론적 범위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말할 때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대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희망에 관해 이야기할 때, 로마서에서 이 문구가 이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세요. 4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의 소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우리의 환난이 입증된 성품을 가져오는 소망에 대해 많이 말합니다. 우리의 검증된 성격은 희망을 가져옵니다.

나는 지구력을 건너 뛰었지만 그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장 20절에서는 부패로부터 궁극적으로 해방되기를 바라는 피조물의 소망을 말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아마도 그가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에서 아담에 관해 말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8:24, 8:25). 12:12, 희망 중에 기뻐합니다. 비록 기쁨의 표현은 다르지만, 5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15장 4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절인 13절에서 복을 말씀하실 때,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11장을 인용한 15장 12절의 앞 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 이방인들이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가 방금 인용한 본문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시편과 이사야를 제외하고 실제로 정경의 다른 어느 곳보다 로마서에서 더 큰 주제입니다. 소망은 로마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비록 바울이 로마 교회에 앞으로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희망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그들에게 확실히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또한 13절에서는 모든 기쁨과 평강이 너희 믿는 대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글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는 그들을 위한 이 기도에서 로마서와 로마서 부분에 관심이 있는 많은 주제들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베소서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실 세 가지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을 위해 이러한 것들을 기도한 후에 나머지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왔으며, 그런 다음 계속해서 그들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그가 그들에게 말한 내용 중 일부를 그들이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쁨, 평안, 그리고 믿음. 기쁨,

소망 중에 즐거워함, 12:12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12:15.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니라, 14:17. 평화.

글쎄, 이것에 대한 이전 참고문헌에 대해서는 참고문헌만 언급하겠습니다. 단, 1:7, 2:10, 3:17, 5:1, 8:6. 그는 평화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것인 12:18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당신에게 달려 있는 만큼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14:17.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평화입니다.

14:19. 그들의 연합을 언급하면서 평화 문제를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15장 33절과 16장 20절에서 그는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것처럼 평안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믿는 대로 모든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믿음이 자라날 때, 당신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로마서 곳곳에 나타나는 주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이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로마서에서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참고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1:5, 8, 12, 16~17, 3:3, 22, 25~31, 4:3, 5:9, 11~14, 16~20, 24, 5:1~2, 9:30, 32~33, 10:4, 6, 8~11, 14, 16~17, 11:20, 12:3, 6, 13:11, 14:1, 2, 22~23. 해당 장의 끝, 그리고 나중에 16:26에서. 분명히 그것은 중요합니다. 이 본문 중 다수는 칭의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믿음에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서로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가장 최근의 본문들입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음, 희망은 또한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통하여 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종종 능력과 성령을 함께 결합합니다. 물론, 그것은 다른 곳, 특히
누가복음에서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4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를 살리신 일과 관련된
성령의 능력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권능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활과 연관시키는
18가지 축도 중 하나인 정기적인 유대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것은 매우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19,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곧 그것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가 너희에게 가서 사람의 지혜로 온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능력으로 왔노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과 연관지었습니다.
가능하지만 아마도 특히 복음 메시지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가 고린도에서 기적을 행했지만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16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내적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도 성령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위해 복음 메시지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1장 8-15절과 함께 로마서
15장의 이 부분에서 학자들이 종종 주목하는 중요한 반복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특히 15장에 있는 이 부분에는 가장 강한 파토스나 감정적 호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사를 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장사를 마치고 폐업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그러나 편지의 끝 부분에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했던 것처럼 종종
사업이 포함되어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오프닝에서 자주 반복되는
아이디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미전도 지역, 즉 이방인에게 다가가는 자신의 사명 때문에 왜 그들에게 가는 것이 지체되었는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이제 우리는 다른 절로 갑니다. 그는 그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기도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채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뭔가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이미 선함과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언어를 그가 1장에서 말한 것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악덕 목록에서 세상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든 불의와 각종 악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가득찬 것과 충만한 것에 대해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그것과 대조적으로 이교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 내가 어떻게 나쁜 말을 했는지 반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방인 신자인 여러분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당신과는 꽤 다릅니다. 선함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도 그것은 많은 종류의 좋은 것들을 의미하는 일종의 포괄 문구일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은 많은 평론가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선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에 근거한 것이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영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의 빛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청중에게 자신의 자신감을 확신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서 말했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의 운명이니라. 그러나 우리는 너희에 대하여 더 나은 것을 확신하노라”고 말함으로써 그와 비슷한 일을 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청중을 격려하고 청중을 소외시키지 않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이런 일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었지만, 경고하면서 그들이 실제로 그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나쁜 일을 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것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게 더 온화해요. 그가 훈계를 위해 사용하는 단어인 테오(teo)는 책망을 뜻하는 용어보다 훨씬 온화합니다. 일부 번역에서는 지침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당신 스스로는 이것을 결코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말해야만 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바울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서로 생각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매우 민감한 의사소통자이다.

로마서 16장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동료였고 그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고 아마도 비슷한 것을 가르치고 있었을지라도 이 교회는 그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Paul은 매우 민감한 의사소통자입니다. 그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어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단지 진정한 정보일 수도 있지만 생명을 주는 정신보다는 죽이는 편지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때때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확고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처음 목사였을 때 진리를 전하려는 열정이 있었지만 주님은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역입니다. 또한 당신은 목사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무리를 부드럽게 진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의사소통자입니다. 내 말은, 그는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벽아,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양 떼를 매우 부드럽게 다룰 수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은혜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담대히 썼노라 하였느니라. 이제 철학자와 도덕주의자들은 종종 대담함과 아침을 대조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파루시아(parousia) 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단어는 직접적으로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대담함은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은 그들에 대해 좋은 점을 말함으로써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나에게 '오, 머리가 참 멋지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머리카락을 모두 정말 좋아합니다.

감사해요. 나는 당신이 정말로 그런 뜻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담함은 '오늘 오기 전에 셔츠를 다림질했어야 했어'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덕주의자들은 종종 상기시키기 위해 그들의 권고를 완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면서도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실제로 기술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야 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은혜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12장과 6절에서 그 점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은혜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3절에서 그는 “파라칼로 (parakalo)” 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간구하노라. 글썄, 여기서 그는 다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내가 여러 번 권면하거나 격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울에게 이방인을 섬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는 1.13과 11.13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신 은혜로 그 은사를 통해 이 사람들을 섬기고 있으며 15장 13절에서 기도한

것처럼 성령께서 그들을 만지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역을 15장 16절에서 자신이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봉사한다는 뜻의 *hierourgeo*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prosphora*를 제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12장 1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글썄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으실 만한 것, 거룩하게 된 것, 거룩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받으실 만한 것과 거룩한 것이 있으니 이는 그가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산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임이니라.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로마서 15장에는 민족 화해에 관한 두 가지 예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는 유대 민족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Paul 자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을 섬기는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을 조금 넘어서서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이방인 교회,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헌금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방인, 많은 이방인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 극명하고 놀라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15절부터 27절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인종 화해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원역사의 문제 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연결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친히 세우신 장벽을 넘어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모으신다면, 우리 인간이 세운 다른 모든 문화적 장벽을 얼마나 더 뛰어넘도록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유대인-이방인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 오머가 말하는 원칙은 훨씬 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확립하지도 않은 우리의 다른 종류의 분리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이러한 것들 중 일부를 힘들게 배웠습니다.

그 중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심각한 비극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 비극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저는 박사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 주 더럼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사 과정을 밟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모텔이나 호텔에 체크인을 했어요. 차가 없었는데 아마, 기억은 안 나지만 모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그랬지만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아파트를 구해야 했어요. 호텔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지만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아파트가 실제로는 아니었고, 매니저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호텔 바로 옆에 있는 이 아파트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거기에 좋은지 아시나요? 거기에 빈자리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러자 그녀는 '아, 거기로 가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흑인이예요.

그들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글썄요, 저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깊은 비극의 시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맞을까봐 일부러 거기

갔죠. 내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녀가 말한 것이 일종의 인종차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두웠 다. 벌써 밤이었다. 그 다음에는 교회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이사하기 전에 한 군데에 연락했는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전화했더니 뱅에 자리가 없어서 나를 태울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다음 날 나는 누군가가 교회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파트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젊은 여성 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몰랐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사의 이 특정 지역, 이 특정 시대에 그들이 보는 방식은 백인들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흑인들은 마약상이 아닌 이상 백인들의 영토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겁이 났어요.

그들은 마약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저 를 데려가서 키우시는 할머니께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나를 교회에 초대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성경을 보았습니다. 나는 '오, 그거 좋은 책이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책이 아주 좋은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교회를 떠났고 나를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파트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오후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탈수 상태였습니다.

돈도 별로 없고 햇볕에 심하게 타서 밥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애 중 한 명이 나를 보고 전화를 했어요. 그들은 방금 교회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너랑 다시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왔을 때

주님께서 제가 당신을 초대하여 뭔가를 먹으라고 했고, 교회에 초대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지만 지금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큰 접시 세 개를 먹었어요. 그녀는 아주 훌륭한 요리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그들과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교회에 많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아시다시피 그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강점을 가진 서로 다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그런 종류의 교회들은 너무나 많은 장점을 갖고 있었지만 고통과 깨어짐을 다루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교회는 수세기 동안 고통과 깨짐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힘을 발견했고, 그것이 나를 온전함으로 되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글썄요, 제가 Duke에 있는 동안 Arthur라는 학부생 중 한 명이 저를 그의 서클에 데려왔습니다. 그는 캠퍼스에서 기독교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그룹에 속해 있는 동안 거기에 있는 제 아프리카계 미국인 친구들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일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민권 운동 이후에는 더 이상요.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뿐이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말은, 그들에게는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니었고 심지어 나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하루하루 겪은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지, 백인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니었고,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은 백인 중 10%만이 명백히 인종차별주의자라면 정기적으로 그들에게 많은 문제를 안겨주기에 충분할 정도입니다.

나는 다른 곳보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떠난 후에 아서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약간 회의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 나의 첫 영어 코스, 나의 첫 수업 날, 선생님은 수업이 끝난 후 나를 따로 부르셨고 모두가 떠난 후, 너는 이 수업을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이제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누구에게든 말하면 그것은 나에 대한 당신의 말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말했지, 아서,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지, 그렇지? 그는 나를 바라보며 '당신은 정말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군요, 그렇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Arthur는 수업에 계속 머물렀고 선생님의 공로로 그가 정말 좋은 일을했기 때문에 그에게 A를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놀라게 하고 그녀에게 뭔가를 가르쳐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 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인 Orange Grove Baptist Church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의 목사님은 설교를 했고 그는 노예 이야기와 말콤 x의 자서전 등과 같은 읽을거리를 나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닮은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친구, 내 형제, 자매들과 닮은 사람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읽다가 내 피부색이 너무 부끄러워지고 싶었다. 칼을 들고 내 피부를 벗겨내세요. 그러나 목사님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지 매주 계속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말을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Malcolm X와 실제로 1830년경 David Walker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책을 출판한 후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Malcolm X가 백인은 악마라고 말한 것은 옳았습니다.

그것이 백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한 것은 단지 틀렸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말로 변화시키실 때까지 여러분은 모두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분을 사랑하게

하실 때, 그분은 민족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키십니다.

제가 나이지리아에 있을 때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인종적, 지역적 충돌과 Igbo와 Yorubas 사이의 긴장, 그리고 실제로 다른 많은 종류의 긴장에 대해 목격하고 듣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긴장이 정확히 존재하는 곳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단지 백인과 흑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은 기업 수준, 즉 내 그룹과 당신의 그룹에 적용되는 인간 이기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흔히 하는 일입니다. 제 아내는 중앙아프리카 콩고 출신입니다.

그녀는 프랑스에 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인종차별을 경험했고 인종차별에 경악하는 사람들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 갔는데, 한번은 그녀가 게시한 것을 본 일자리 기회를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일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 그래, 들어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파리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프랑스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녀가 나타나자 그들은 단지 "아, 당신은 흑인이군요. 우리는 여기서 흑인을 고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버스 요금을 아끼고 시간 낭비를 아끼기 위해 그녀가 전화할 때 안녕, 나는 에이든이고 흑인이고 아프리카에서 왔어요라고 말하더군요. 직업.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경우 그녀는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최악의 인종차별은 고국으로 돌아가 민족전쟁의 희생자가 되었을 때라고 말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숲에서 18개월 동안 난민이 되었습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며 때로는 우리가 다른 그룹에 잘못된 그룹에 속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과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일본 기독교인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행한 일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이에 대한 예가 워치만 니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플랫폼에 일본인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포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체 청중에게 민족 화해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감동시켰는지 보여줍니다. 당시 서양 청중이었습니다.

내 말은, 우크라이나 기독교인과 러시아 기독교인은 어쨌든 긴장을 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장벽을 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팔짱을 끼는 것입니다. 케랄라(Kerala)와 타밀나두(Tamil Nadu)의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스트, 달리트, 브라만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한쪽이 다른 쪽보다 화해를 더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신자로서 서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스리랑카의 타밀 및 싱할라 기독교인 등.

저는 단지 이 문제가 세계의 많은 곳,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 아내의 나라에서는 피그미족이 정말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럽 식민주의자들이 그 지역의 다른 민족들을 학대했던 것처럼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적 장벽이 무엇이든, 사회의 장벽이 무엇이든, 우리나라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어떤 사람들은 반대편에 기독교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니, 정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종적, 민족적 분열과 정치적 분열 등을 초월해야 합니다. 내 말은, 당신은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라면 우리는 차이점보다 더 깊은 연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부터 21절까지에서 자랑합니다.

좋은 핑계가 없으면 자랑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자, 저는 이것이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명예로운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들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돈을 주더라도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자랑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좋은 핑계가 없으면 자랑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좋은 변명을 찾았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Cicero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이 일에 탁월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직책에 출마하는 내 상대는 확실히 이 일에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 그리고 이 이유는 내가 한 일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뒷문에 밀어 넣었습니다.

글쎄, 바울은 일반적으로 자랑하는 것을 피하지만, 자랑할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1, 내가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그것을 하게 되었노라 너희가 나를 강요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12:11. 그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21-23, 그는 자랑해서는 안되는 이 사람들의 자랑에 맞서기 위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그들 가운데 사도적 권위를 다시 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서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자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 지역에서 행하신 일만을 자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방인 복음의 영역에서 이루신 일(롬 15:18)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꽤 큰 구체입니다.

이방인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개척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그리고 이방인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라(롬 15:18)고 하셨습니다. 글쎄, 당신은 그것이 로마서의 다른 곳에서도 그의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믿음의 순종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1장과 5절, 그리고 또한 편지의 시작과 끝인 16장과 26절을 말씀합니다. 그는 말과 행동으로 이 순종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글쎄, 이것들은 고대 관용구에서 정기적으로 짝을 이룹니다.

내 말은, 사람들이 당신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모두에서 완전히 말하고 싶을 때, 그것이 그들이 사용하는 문구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1절과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 둘을 연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 두 가지가 짝을 이루었지만 고대 문헌의 모든 곳에 등장합니다. 그가 표현하는 방식은 단지 정기적으로 그들의 관용구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이해는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순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통해 어떻게 행하십니까? 19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힘.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가 여기 19절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들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도의 표징과 기사가 여러분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임무 전체를 특징짓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획기적인 임무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6장과 8절에서 스테반의 사역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빌립의 사역이 포함된 8장 6절과 13절은 획기적인 사역이다.

거기에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도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그의 은사입니다.

전도자 빌립은 나중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아폴로스와 함께 녹음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명에는 종종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수반됩니다. 그렇다면 이 언어는 무엇을 불러일으키나요? 그것은 구원 역사에서 특정한 종류의 순간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여전히 새로운 영역에서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신약성서에서 이 언어는 특히 구약성서에서만 아니라 특히 모세와 출애굽을 둘러싼 표적과 기사의 언어를 불러일으킵니다. 출애굽기 7:3, 11:9-10, 신명기 4:34, 6:22, 7:19, 11:3, 26:8, 34:11, 그리고 예레미야 32장에서도 그 당시를 다시 언급합니다. 20, 21장, 기타 유대 문헌, 솔로몬의 지혜서 10장, 바룩서 2장 등.

이제, 이전에 모세에 대한 암시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바울이 9장과 3절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치려는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거나 11장과 2절에서 엘리야와 자신을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출애굽에 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출애굽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그를 통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4세기 개종의 주요 원인은 예일대 역사학자인 램지 맥멀린(Ramsey McMullin)이 지적한 것인데, 4세기 개종의 주요 원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치유와 퇴마입니다. 그리고 Ramsey McMullin이 한 인터뷰를 들었는데, 그는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지만, 제가 찾은 것이 바로 그 인터뷰였습니다.

Talbot Seminary의 JP Moreland는 이것이 지난 30년 동안 교회 성장의 최대 70%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다른 곳보다 교회의 일부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는 전 세계 기독교 성장의 주요 원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행전 비디오에서 더 많은 것을 말했고, 그것에 관한 두 권의 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 말할 필요는 없고 단지 몇 가지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1907년 이후 한국 부흥운동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그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놀라운 치유로 인해 수세기에 걸쳐 조상의 믿음을 바꾼 수백만 명의 비기독교인에게도 확신을 주었습니다.

삼자교회와 관련된 한 소식통은 2000년경에 지난 20년 동안 모든 개종의 약 50%가 이른바 신앙 치유 경험으로 인한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찾은 가정교회 추정치는 적어도 시골 지역에 대해서는 대략 90%였습니다. 이제는 50%, 90%라고 말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비율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우리는 비기독교적인 전제에서 시작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경험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심지어 전통적인 종교적 경험보다 더 드라마틱한 무언가를 보거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문제에 기꺼이 수세기에 걸친 조상의 믿음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모라비아 목사인 더글러스 노우드(Douglas Norwood)가 나에게 뭔가를 말해 주었는데, 물론 모라비아인들은 1600년대 기도회와 그 당시 선교 운동을 이끈 성령의 부으심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글쎄요, 더글러스는 니카리 수리남에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도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니카리 수리남에서는 이곳은 수리남 내에서 기독교가 아닌 지역이었습니다.

주로 그들은 다른 종교, 다른 신앙에 속해 있었고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수세기 동안 거기에는 여러 다른 종파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에는 아마도 수백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고, 교회들은 같은 교인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그는 그들이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으며 그들의 경쟁을 회개하기 시작했고 나가서 그리스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흥분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70~80대쯤 되어 보이는 한 사람은 그 사람이 꽤 늙어 보이긴 했지만 평생 동안 팔이 마비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다가와서 '나는 이 기독교 신을 무시한다'고 말하자 즉시 마비된 팔이 공중으로 치켜올랐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회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회심했습니다. 이것이 니카라과 수리남에서 문서화된 민중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이러한 돌파구 덕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워치만니는 선교 사업에 있어서 표적과 기사의 또 다른 예를 제시합니다. 이제 John Sung, 실제로 중국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John Sung이 이것으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요한 성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워치만 니의 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제로 치유 등에 관한 이 특정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John Sung은 이에 대해 보고할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어렸을 때 그와 그의 친구들이 한 마을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던 특별한 기록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절 때 항상 비가 오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년이 훨씬 넘게 계속되어 왔습니다. 제사장들이 축제를 계획하는 날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그것이 건기, 우기 또는 다른 것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 한 사람이 이 시점에 혼자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해는 그 축제에 비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볼 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자기가 한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아,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하더군요.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가장 큰 폭풍우, 수년 만에 가장 큰 비였습니다. 신부님은 '잠깐만요, 우리가 실수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일정을 다시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도 비가 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은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 제사장들이 실제로 발을 쓸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신상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심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계정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나의 아주 좋은 친구가 보낸 것입니다.

저는 Emanuel Etopson 박사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히브리 연합 대학에서. 그는 또한 서아프리카 복음주의 교회의 ECWA 목사이기도 합니다. 1975년쯤, 그의 아버지는 교회가 없는 마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마누엘은 그 당시 아직 소년이었지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막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집에 지붕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4일은 더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그를 조롱하며 말했어요. “지금은 장마철이구나.” 비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망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집에 지붕을 엮을 때까지 이 마을에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맙소사,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라고 말하더군요. 그 후 4일 동안 마을 전체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기가 시작되는 동안 정상에서 너무 극적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나흘이 끝날 때까지 그 마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그것을 기독교 마을이 된 촉발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한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열방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글썄요, 사실 그는 기술적으로는 아마도 예루살렘보다 조금 전에 시작했을 것입니다. 내 말은, 그는 다메섹 주변에서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과 고린도후서 11장 33절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종합해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아마도 약간의 설교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루살렘에서 유대까지의 그의 사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어쨌든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 예루살렘에서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루리곤에서 설교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열방에 다가가는 일의 일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곳의 모든 개인에게 설교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가 그곳의 모든 개인에게 다가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몇몇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기능하는 토착 교회가 있다면, 토착 교회는 어쨌든 외부인보다 더 큰 문화적 민감성을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장소에 기능하는 토착 교회가 있으면 그는 계속해서 다른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래 계시면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 대표적으로 최선을 다해 열방에 다가가고 그곳에서 토착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선교가 아니었다면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을 때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는가? 그래서 그는 세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지만 다른 많은 곳에서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나는 Illyricum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Illyricum은 어디에 있나요? 발칸 반도의 서쪽 해안이나 이탈리아 건너편 아드리아 해의 동쪽 해안에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북쪽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마케도니아 서부의 일리리스 그레카 (Illyris Greca)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표현대로라면 일리리쿰(Illyricum)의 경계까지 이르렀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Illyricum으로 갔거나 Illyricum의 경계까지 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언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는 그가 빌립보를 떠나 비아 에그나티아(Via Egnatia)를 따라 여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도로는 마케도니아를 통과하는 로마의 주요 도로였으며 육로로 이탈리아와 소아시아를 연결했지만 바다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양쪽에 있습니다. 비아 에그나티아(Via Egnatia)를 통해 그는 암피폴리스(Amphipolis), 아폴로니아(Apollonia)를 거쳐 테살로니카(Thessalonica)로 여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에그나티아 가도(Via Egnatia) 를 타고 서쪽으로 계속해서 마케도니아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의 뒤를 바짝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케도니아에서 벗어나 주요 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Via Egnatia) 를 벗어나 남쪽으로 여행합니다.

그 당시 그는 아직 마케도니아에 있었지만 남쪽의 베뢰아로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남쪽으로 그리스의 로마 속주 아카이아로 여행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또 언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글쎄, 우리는 그가 로마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기 직전에 마케도니아를 여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서 그는 마케도니아를 통과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 그는 티투스 등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도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보내기 전의 일이다. 따라서 아마도 마케도니아 방문 동안 그는 더 멀리 여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는 마케도니아에서 아가야까지의 전체 여행을 약 세 구절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Luke는 우리에게 그러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가 그렇게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즉, 고린도에 와서 로마서를 쓰기 직전이다. 따라서 연대순으로 보면 예루살렘부터 그가 지금까지 도달한 일리리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Illyricum보다 더 서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올 계획이다.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맡은 일을 마친 후의 다음 계획은 이것이다.

이 구절을 공부하면서 내 접시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명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20-22절).

또는 고린도후서 10장 13-16절에 따르면 그는 다른 사람의 영역에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베드로와 맺은 일종의 우호적 합의조차 기억할 것입니다. 글쎄요, 베드로는 할례에 대한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보다 이방인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은 신경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구원의 역사적 마련으로 볼 때,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로 볼 때 그것은 이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설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바울이 회당에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갈라디아서 2장을 사용하여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을 회당에서 다섯 번 채찍질하고 39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로 가고, 바울은 유대 민족에게로 가는데 그들의 선교의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교의 핵심은 적어도 처음에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고 베드로가 유대 민족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지 않으며, 고린도후서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노력만 할 때 자신과 같은 종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분개했습니다. 그의 일을 정리하려고.

바울은 다른 곳에서 기초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기초를 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는 모퉁잇돌이시며 그분은 형상을 다소 바꾸셨고 그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었으며 우리는 신약의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복음을 위한 터를 닦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해 왔으며 이것이 메시지가 전파되는 터입니다.

글쎄요, 바울은 다른 지역에 기초를 놓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다양한 종류의 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사도직은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그의 사명이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15:21, 그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하여, 듣지 못한 자들이 들을 것이요, 보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맥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문맥은 종, 고난 받는 종이 많은 나라에 뿌릴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즉각적인 맥락에서 열방에 관한 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52:15절이 어디에 나오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이사야 52장 7절 사이에, 평화의 좋은 소식,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를 말하며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사야 53장 바로 앞 구절이니라., 이것들은 그가 이전 장에서 방금 인용한 두 구절입니다.

그는 이사야 52장 7절을 10장에서 인용했고, 이사야 53장도 최근 장들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성경의 전체 부분, 전체 문맥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9절입니다.

알다시피, 나는 이런 일을 해왔으니 곧 당신에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가지 못한 이유는 너희에게 가고 싶어도 기초를 닦는 사명 때문에 방문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로마에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로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는 이미 1:15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주요 임무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의 부름은 아니지만, 아마도 그것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부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의심하는 이유는 아직 이해하기 쉽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지역에는 자신이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같은 회원을 놓고 경쟁하며 때로는 목사가 죽어서 교회를 갖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나는 그것을 목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에 부르셨다고 해서 우리가 사역이 무엇인지 항상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무엇을 갖고 계시는지 들어야 하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중 일부는 보냄을 받을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글쎄, 그들은 보내졌다고 바울은 10장에서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복음을 들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곧 15:23입니다. Paul은 아마도 곧 당신에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노라 1장 11절.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서의 일은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페인으로 가는 중이군요, 15:24. 스페인에서 Paul은 더 많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종종 지구의 종말로 간주되었습니다.

고대 지중해에서 사람들은 땅끝에 관해 이야기할 때 때때로 북동쪽에 있는 스키타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영국인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툴레(Thule)라는 이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북서쪽에 있는 아이슬란드를 의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파르티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쪽을 생각할 때 인도, 특히 중국에 대해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땅 끝을 말할 때 에티오피아나 에티오피아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집트 남부의 모든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수단을 포함한 이집트 남쪽의 아프리카 전역은 에티오피아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서쪽의 땅 끝이라고 말할 때, 가장 먼 서쪽은 종종 강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스페인이 지구 끝의 서쪽 끝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쪽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쪽, 아시아의 나머지 지역, 아프리카의 나머지 지역으로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복음은 그리스인들이 세상을 상상했던 방식으로 아시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북쪽의 모든 것은 유럽이었습니다. 동쪽의 모든 것은 아시아였습니다.

그들은 대륙 분할을 생각해냈을 당시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실제로 많은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모든 것은 아프리카였습니다. 따라서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에 따르면 복음은 아프리카와 매우 가까운 아시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Paul은 이 시점에서 서쪽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방인의 총명한 수가 들어와야 하므로 이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요? 그리고 끝이 올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랐으며, 좋은 소식이 전파되어야 하고 이 교회들이 땅의 모든 지역에 세워져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느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는지와 당시 어느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는지는 많이 다르지만, 여전히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뇌를 쉬게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디자인 이야기를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 말은, 당신이 영어 교수라면 이해하지만, 당신이 영화 감독이라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당신은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나는 이것에 대해 소수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왜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필요는 너무나 큼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문자가 죽이고 영이 생명을 준다는 것과 사람들이 영원을 위해, 매 순간을 영원하도록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열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말은, 여호수아가 일을 행한 방식은 그의 시대에 적합했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종교적 위선자들을 그 안에 두셨지만 대부분 그분은 소외된 사람들, 세리들과 죄인들, 멸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배고프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맛볼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일, 즉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리는 일에 잠기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져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해서, 마치 표준을 지키면 율법의 행위가 가까워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수의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바울 시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디모데와 같이 주의 일에만 주의하는 사람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양한 종류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청소년 사역자이거나 목회자이고 이런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 너무나 매진된 교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는 교회, 실제로 대위임령을 성취할 세대를 갖는 교회입니다.

1세대와 아마도 2세대는 상당히 가까웠을 것입니다. 1800년대에는 선교에 열정적인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착교회의 원리를 그다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도 매진된 세대가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곧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일을 실제로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내 말은, 1800년까지 세계 인구는 대략 10억 명 정도였습니다. 1,8520억 명, 1,953억 명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70억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험이 높습니다. 우리 세대는 우리 이전의 어떤 세대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세계 여러 곳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도 천국의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어 마지막이 이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15회기 로마서 15:13-33입니다.